

평신도를 위한 신학 / 교리

그리스도의 속죄교리(2)

기독교의 윤리는 속죄를 근거하여 나온다. 이것이 일반윤리와 기독교윤리의 차이점이다. 속죄의 진리가 나무뿌리에 비유하면 윤리는 그 열매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마5-7장에 있는 산상보훈을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속죄교리가 없어도 산상보훈만 가지면 기독교가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존 메이천 목사는 "산상보훈도 예수님의 속죄가 없이는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산상보훈은 골고다의 십자가 없이는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갈보리의 십자가가 없이는 시내산의 십계명 내용을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산상보훈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모두 속죄와 연관될 때 이루어진다. 기독교 윤리를 실행할 수 있는 자는 사랑의 인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이다. 속죄에 근거한 사랑을 바탕으로 나오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한 진리도 윤리가 아니고 속죄였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교훈을 요약하면 모두 예수님의 속죄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장사 영화롭게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 '나사렛 예수는 가정에서 지극히 효성스런 아들이었으며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해 봉사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따르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삼일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였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다. 모든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속죄이며, 속죄와 관계를 맺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이 된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김 승 환 1청년부, 예배	010-2748-5218	장 로	김형복 류재천 김형필 윤영호
	박 종 건 2청년부, 교육	010-8537-0370	은 퇴 장 로	김정웅 김주량 남상목
심방전도사	김 정 희 교구, 중보기도	010-2394-4476	명 예 장 로	공순영 김길성 김석현 김정남 김정현 나희태 이복우 조기신 최병철 황상호
	김루디아 교구, 새가족부	010-4534-7250	지 휘	최 영 방성호
교육전도사	김 원 와 영아부	010-9251-6255	피 아 노	김경원 강성희 정현주 최 은
	고 애 란 유치부	010-9267-6413	오 르 간	강성희
	권 창 현 중교동부, 찬양	010-9381-6323	행정사무원	김용희 행정-사무 010-7582-1009
	최 준 혁 유초동부	010-2293-1093	음 향 간 사	정병국 음향 010-4044-8653
			영 상 간 사	추연철 방송-영상 010-2218-3507
			관 리	김형복 관리-차량운행 010-3933-0461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1부 오전 8시	사 랑 흘 (3층)
	2부 오전 10시	비 전 흘 (2층)
	3부 낮 12시	비 전 흘 (2층)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비 전 흘 (2층)
수 오 예 배	오후 7시30분	사 랑 흘 (3층)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사 랑 흘 (3층)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사 랑 흘 (3층)
영 아 부	주일 오전 10시, 12시	영아부실(2층)
유 치 부	주일 오전 10시, 12시	유치부실(1층)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 10시	사 랑 흘 (3층)
중 등 부	주일 낮 12시	사 랑 흘 (3층)
고 등 부	주일 낮 12시	사 랑 흘 (3층)
청 년 1 부	주일 오후 2시30분	사 랑 흘 (3층)
청 년 2 부	주일 오후 2시30분	사 랑 흘 (3층)

교회 오시는 길



제45권 5호 2016년 1월 31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예수공동체"

www.jesusvl.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김 동 진 Rev. Kim Dong-J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동남로4번길 12
TEL. 031)714-1004, 9191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주일오전예배

WORSHIP

사회 찬양	1부 김승환 목사	2부 김승환 목사 2부 히 엘	3부 박종건 목사 3부 아이노스
경배와찬양			다 함 깨
※ 송 영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 깨
※ 교 독 문		45. 시103편	다 함 깨
※ 사 도 신 경			다 함 깨
※ 찬 송		94장(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함 깨
■ 기 도 인 도			1부 김형필 장로 2부 류재천 장로 3부 김형복 장로
교 제 찬 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다 함 깨
■ 교 회 소 식			사 회 자
■ 헌 금		82장(성부의 어린양이)	다 함 깨
■ 성 경 봉 독		고전1:18-25(신약p.264)	담 당 자
찬 양		"주 한분만이"	호 산 나
		"보혈의 은혜"	예 루 살 렘
■ 설 교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김동진 목사
※ 찬양과기도			다 함 깨
※ 축 도			김동진 목사
※ 파 송 찬 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함 깨

※는 일어서 주십시오. / ■ 1부 예배순서

주일오후예배

경배와찬양		테릴라 찬양팀
기 도		오경애 권사
찬 송		370장
설 교		빌 1:6
		"착한 일을 이루신다"
		김승환 목사
축 도		김동진 목사
파 송 찬 양		"교회를 교회되게"

수요일예배

시 간		오후 7시30분
설 교		엡 1:3~14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박종건 목사

금요기도회

시 간		오후 8시30분
장 소		비전홀(2층)
담 당		김동진 목사

새벽기도회

시 간		오전 5시
장 소		비전홀(2층)
담 당		담임목사/교역자

교회 소식

새가족 소개

새로 등록하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로 인도자와 함께 오셔서 담임목사님을 만나주세요.

NO.	성명	주소	인도자	NO.	성명	주소	인도자
15	우치영	수내동	스스로	18	이해인	분당동	심영애
16	이영숙	수내동	스스로	19	민병규	수정구	이중순
17	이중규	수내동	스스로	20	이지현	수정구	이중순

꿈과사랑의교회 성도의 다짐

1. 나는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2. 나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예수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3.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4.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2016년도 표어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계21:5)

예배를 새롭게 하소서 / 교육을 새롭게 하소서 / 선교를 새롭게 하소서 / 봉사를 새롭게 하소서

1. 2016년 제직부서 모임: 5개 제직부서장 및 부원 전체모임

- 오후예배후, 본당

2. 꿈과사랑의교회 장학회 운영

- 운영을 위한 장학회원 모집(여전도회, 회비X)
- 장학회용품: 김, 미역, 참기름, 들기름, 깨 등 / 명절: 떡국 떡, 굴비 등 판매

3. 설날 연휴 예배안내

- 다음주(7일) 오후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 다음주(7일) 주일낮예배 후 식사봉사는 없습니다.
- 설날 연휴(8-10) 새벽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 10일 수요일예배는 다같이 모입니다(7시30분, 비전홀)

교육 및 모임

내 용	시 간	장 소
1청년부 모임	젊은이예배(2시30분) 후	빌립홀(5층)
2청년부 모임	젊은이예배(2시30분) 후	사랑홀(3층)
안수집사 제자훈련	오후예배 후	안수집사회실(6층)
구역장 공과교육	오후예배 후	꿈사랑홀(3층)
안수집사 기도모임	주일오전 8시30분	안수집사회실(6층)
화요중보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1시	한나실(B1층)
수요중보기도모임	수요일예배 후	사랑홀(3층)
목요중보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1시	한나실(B1층)

지난 주 말씀

요 5:1-9 치열한 경쟁시대를 사는 당신을 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은 경쟁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정형화된 교육과정과 생애주기에 대한 정답을 설정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 성과를 타인과 비교하여 내가 우월하면 만족하고 열등하면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된 병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가끔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낫는다는 통설을 따라 대기하며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사람이었다.

1. 우리는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고 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스템이다. 많은 경쟁자 중에 오직 한사람만 고침받고 나간다. 나머지는 패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회이다.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은 알지만 1등을 할 방법은 없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전혀 뜻밖에도 문제해결을 받게 되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노력이 실패하고 절망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다.

2. 38년의 실패는 그를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었다

38년은 오랜 세월을 상징한다. 38년이 지나면서 포기와 절망이 일상이 되었다. 38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병은 낫지 않는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예수 안에서 낫고자 하는 열망이 우선이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아시고...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가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누워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알고 계셨다. 38년을 보내면서 절망한 그였음을 잘 아셨기에 물어보신 것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4.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에게이레) 부활에 쓰이는 단어이다. 우리가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시다. 일어서는 자가 걸어갈 수가 있고 걸어가자는 자가 회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계획과 섭리의 수가 너무나 많으신 분이시다(시139:17) 모든 사람을 위한 다양하고 기가막힌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남들과 경쟁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남들과 경쟁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갔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가려는 길이 내게는 정답이 아니다. 남들은 남들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서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행복하고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자.

항기로운 예를

심 일 조	김정희	김형록	김정자	최광로	양수준	주정진	이은준	강신숙	김일영	민지은	유중수	김철호	박순희	배재현	나원용
김경림	오향순	신준길	강영욱	김수현	이은준	강신숙	김일영	민지은	유중수	김철호	박순희	배재현	나원용	김경림	오향순
강두애	권순만	최해란	최현숙	문순희	이은준	강신숙	김일영	민지은	유중수	김철호	박순희	배재현	나원용	김경림	오향순
이상래	한혜원	최미희	김연희	김정희	이은준	강신숙	김일영	민지은	유중수	김철호	박순희	배재현	나원용	김경림	오향순
김승환	노재관	김성근	주세영	김경배	이은준	강신숙	김일영	민지은	유중수	김철호	박순희	배재현	나원용	김경림	오향순

감사헌금	김동진	오영숙	전순호	이화용	이영우	나원용	김경림	류인숙	조원구	이현우	류재천	김정남	김정자	최기철	나원용
박정숙	강정석	정이영	정정수	백사랑	김경희	김경희	고애란	노재관	김성근	주세영	유상환	김복술	권원택	김정남	김정자
김길성	김형필	남애희	권영순	김경희	박하영	김길자	장은주	최광목	황이숙	문영진	정준자	김정남	김정자	최기철	나원용
이소영	이신성	구희중	손명철	김정용	박진석	박종건	류일청	김수정	류지우	전경옥	신정례A	김에스터	김정남	김정자	최기철
무명5															

철야헌금	김동진	오영숙	손명철	권만기	김철호	박순희	조윤심	임태현	김신영	김정현	윤영호	한인숙	전순호	김정자
류재천	한사랑	김형복	이영희	최영준	유원옥	김의배	무명2							

선교헌금 손재훈 손다영 / 건축헌금 나원용 김경림 나현주 나승현 / 피아노헌금 원명자
심방감사헌금 박소연 조근호 / 유,초등부후원금 나원용 김경림 / 상조헌금 백분근 김석현 문연희 백옥현 박미영

※ 주일헌금은 주일헌금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헌금: 신한은행 100-028-714510(예금주: 꿈과사랑의교회)

헌금 위원		
1부	2부	3부
신일숙	이화용 전관숙 유봉순	민지은 정정순 김용례
	유순중 박경숙 이윤주	이현희 윤종오 송해숙
		김명철 서관선 박양숙